

♡— seikyoonline — ♡

2022년은 ‘청년·비약(飛躍)의 해’

2022년은 ‘청년·비약(飛躍)의 해’ 하라다(原田)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방면장회의

2021년 11월 13일



하라다 회장을 중심으로, ‘청년·비약의 해’의 승리를 향하여 마음을 하나로 출발한 전국방면장회의. (학회본부 별관에서)

전국방면장회의가 어제 12일, 하라다(原田) 회장, 하세가와(長谷川) 이사장, 나가이시(永石) 여성부장이 참석해, 도쿄(東京)· 시나노마치(信濃町)의 학회본부 별관에서 실시됐다. 여기에서 하라다 회장을 중심으로, 내년 **2022년**의 활동에 대해 협의(協議). 석상에서 명년의 테마를 ‘**청년(青年)·비약(飛躍)의 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코로나화(禍)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끽掴이 승리해낸 전국 동지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 개가(凱歌)로 장식한 ‘창립의 달’을 승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이 기뻐해 주시는 이상의 제자의 영예는 없다고 말하며 재차 리더는 존귀한 음덕(陰德)의 지용(地涌)의 보우(寶友)를 최대로 상찬해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서(御書) 신판(新版)이 발간되고 여성부가 새롭게 출발하는 ‘11· 18’ 에서부터 내년을 향하여, **지금 다시 우리 자신이 원초(元初)의 구도(求道)와 서원(誓願)의 생명을 불타오르게 하여** 어서(御書) 그대로 싸우고 단결하여 ‘불법즉사회(佛法卽社會)’ ‘불법승부(佛法勝負)’의 대과보(大果報)를 전 세계에 보여주자고 말했다.